

대학생의 우울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권명진¹, 최현숙^{2*}

¹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청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Myoungjin Kwon¹, Hyunsuk Choi^{2*}

¹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D시와 C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84명이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우울,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부민감성은 우울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 거부민감성, 대인관계능력 간의 작용 기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우울과 거부민감성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개별화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키워드 : 거부민감성, 대인관계능력, 대학생, 우울,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0, and 184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D City and C province in Korea completed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6.0 program. In this study, depre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jection sensitivity confirm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on the mechanisms of action between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 that elements of depre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should be included in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individualized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Interpersonal competence,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yunsuk Choi(ilsu7729@gmail.com)

Received August 15, 2023

Accepted October 20, 2023

Revised September 1, 2023

Published October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1]. 대인관계는 발달단계의 특징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 또 이 시기에 형성된 대인관계능력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원천이 되며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4].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그 어느 발달단계에서보다 중요하며[5], 이 시기에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6].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어떤 사람들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7].

이런 맥락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관련성이 확인된 변인들 중 하나가 우울이다. 우울감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8, 9].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며 타인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향이 있다[8].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은 초기에는 우울한 대상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만 우울한 사람으로부터 그 애정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점차 불편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8]. 대학생들은 이전보다 급격히 확장된 사회적 환경으로의 도전과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울에 더욱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10, 11].

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연기된 학업 일정 등은 대학생들에게 우울, 무기력, 좌절,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였다[12].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해 대학생에게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 문제는 우울로, 34%의 유병률을 보이며[13] 우울의 정도나 심각성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증가되었다[14, 15]. 우리나라도 2021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

사 결과, COVID-19 발생 이전인 2018년 결과에 비해 우울 평균점수는 2배 이상,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약 6배 증가하였으며, 20, 30대에서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16]. 그러므로 대학생의 우울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다. 거부민감성은 Feldman과 Downey [17]이 제시한 개념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늘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거부 가능성이 있을 때 거부에 대한 기대가 활성화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 거부와 관련 있는 사소한 단서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18]. 또한 모호하거나 중립적인 상황을 거부로 지각하고 분노, 우울, 지지의 철수, 질투, 공격 등의 격렬하고 반사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18]. 결국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적대감과 공격성을 보이고 상대로부터 거부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하여[19] 상대에게 거부를 당하고 거부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20]. 또 이들은 또다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확인을 추구하게 되어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우울, 외로움, 분노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21, 22].

이와 같은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부 민감성이 우울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우울과 거부민감성의 작용 기제를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을 직면한 대학생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단절 등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부재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 변인들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우울과 거부민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능력, 거부민감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시와 C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편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위해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80, 효과 크기=.15, 연구변수 및 대상자 특성 등 10개의 예측변수들을 고려할 때, 172명이 적절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 및 미응답률 20%를 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총 184부(회수율 92.0%)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7문항, 우울 20문항, 대인관계능력 25문항, 거부민감성 15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가보고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3.1 우울

우울의 측정은 Radloff [23]가 개발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을 Chon과 Lee [24]가 번안하여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2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역문항(5, 10, 15)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변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76이었고, Chon과 Lee의 연구[24]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측정은 Schlein과 Guerny [25]가 개발한 RCS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2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77-.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3.3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의 측정은 Park과 Yang [3]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거부민감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영역(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거부지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5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변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Park과 Yang의 연구[3]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대인관계능력과 거부민감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능력과 거부민감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을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는 Baron과 Kenny [26]이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값인 상호작용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단계에서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상호작용변수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작용변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에서 각 변수의 평균값을 뺀 후 곱하여 상호작용변

수를 생성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연구 참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대상 및 참여방법, 연구 참여시 예상되는 위험요소와 이익,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유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 또 설문 응답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서와 설문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87.5%로 남성에 비해 많았고, 평균 연령은 22.1±4.90세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33.2%이었으며, 경제 상태는 81.0%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72.3%이었으며, 자신의 성격은 58.7%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학업성적 만족도는 57.1%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우울 평균점수는 3.30±0.55점, 대인관계능력 평균점수는 3.71±0.49점, 거부민감성 평균점수는 3.41±0.65점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Gender	Male	23 (12.5)	
	Female	161 (87.5)	
Age (years)		22.1±4.90	19-57
Have a religion	Yes	61 (33.2)	
	No	123 (66.8)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16 (8.7)	
	Midium	149 (81.0)	
	Low	19 (10.3)	
Living with family	With family	133 (72.3)	
	Living alone	51 (27.7)	
Perceived personality	Positive ^a	108 (58.7)	
	Moderate ^b	66 (35.9)	
	Negative ^c	10 (5.4)	
Perceived academic satisfaction	Dissatisfied	55 (29.9)	
	Moderate	105 (57.1)	
	Satisfied	24 (13.0)	
Depressive symptom		3.30±0.55	1.00-4.00
Interpersonal competence		3.71±0.49	1.00-5.00
Rejection sensitivity		3.41±0.65	1.00-5.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20, p<.001). 자신의 성격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보통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73±0.47	0.07 (.094)	
	Female	3.72±0.50		
Have a religion	Yes	3.79±0.44	-1.21 (.229)	
	No	3.69±0.52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3.80±0.39	2.62 (.092)	
	Midium	3.75±0.50		
	Low	3.48±0.49		
Living with family	With family	3.73±0.45	0.41 (.678)	
	Living alone	3.69±0.58		
Perceived personality	Positive ^a	3.94±0.40	38.20 (<.001)	a)b,c
	Moderate ^b	3.44±0.43		
	Negative ^c	3.11±0.35		
Perceived academic satisfaction	Dissatisfied	3.86±0.53	2.30 (.112)	
	Moderate	3.66±0.46		
	Satisfied	3.67±0.52		

3.3 우울, 대인관계능력과 거부민감성 간의 상관관계

우울은 대인관계능력(r=.41, p<.001)과 거부민감성(r=.3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능력과 거부민감성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 p<.001)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jection sensitivity (N=184)

Variables	1 r (p)	2 r (p)
1. Depressive symptom	1	
2. Interpersonal competence	.41 (<.001)	1
3. Rejection sensitivity	.39 (<.001)	.40 (<.001)

3.4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 미치는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일반적 특성 중 자신이 인식하는 성격을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70.21, p<.001). 성격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184)

Step	Variables	B	SE	β	t	p	Adjusted R ²	F (p)
1	Perceived personality_positive	3.40 0.52	.04 .06	.52	70.98 8.37	<.001 <.001	.274	70.21 (<.001)
2	Perceived personality_positive Depressive symptom	2.69 0.43 0.23	.18 .06 .05	.43 .25	14.67 6.73 3.98	<.001 <.001 <.001	.329	45.88 (<.001)
3	Perceived personality_positive Depressive symptom Rejection sensitivity	2.34 0.40 0.15 0.17	.20 .06 .05 .04	.41 .17 .23	11.69 6.51 2.60 3.69	<.001 <.001 .010 <.001	.373	37.27 (<.001)
4	Perceived personality_positive Depressive symptom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ve symptom × Rejection sensitivity	2.25 0.41 0.19 0.15 0.27	.19 .06 .05 .04 .08	.42 .21 .20 .19	11.43 6.84 3.27 3.25 3.27	<.001 <.001 .001 .001 .001	.405	32.14 (<.001)

The difference value between step2 and step3 was $\Delta R^2=.024$ ($p<.026$)

미한 영향요인이었으며($\beta=.52, p<.001$), 설명력은 27.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성격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우울을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으며($F=45.88, p<.001$), 설명력은 32.9%로 증가하였다. 긍정적 성격($\beta=.43, p<.001$)과 우울($\beta=.25, p<.001$)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3단계에서 성격과 우울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절변수인 거부민감성을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으며($F=37.27, p<.001$), 설명력은 37.3%로 증가하였다. 성격($\beta=.41, p<.001$), 우울($\beta=.17, p=.001$), 거부민감성($\beta=.23, p<.001$)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4단계에서 성격, 우울과 거부민감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과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결과에서도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2.14, p<.001$), 설명력이 40.5%로 증가하였다. 성격($\beta=.42, p<.001$), 우울($\beta=.21, p=.001$), 거부민감성($\beta=.20, p=.001$)과 조절변수($\beta=.19, p=.001$)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능력, 거부민감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와 Hong의 연구[27] 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지만 Byun 등의 연구[10] 결과와

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학생의 우울 유병률을 추정한 Chang 등의 메타분석연구[15]에서는 34%, 스페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steiro-Diaz 등의 연구[28]에서는 39.1%,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의 연구[29]에서는 39.1%가 중간에서 심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우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참여자의 58.7%가 긍정적 성격의 소유자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격은 삶의 변화를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 성격의 대학생들이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삶의 변화를 부정적이지 않게 인식한 결과일 수도 있다[30]. Szepietowska 등의 연구[31]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팬데믹이 삶의 많은 영역을 통제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도 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이전에 과소 평가되거나 무시되었던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격에 따라서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도록 재구성될 수 있다[31]. 하지만 McLafferty 등의 연구[14]에서는 대학생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우울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14],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

여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점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 등의 연구[32]와 Kim의 연구[33]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Cho의 연구[34]의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의 연구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오랜 기간 겪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이라고 인식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관대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유익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는 선행연구[7]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대인관계는 항상 즐겁고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두려움,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7]. 그러므로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35], 사회적으로도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거부민감성 점수는 Sun과 Seo의 연구[3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대학생의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생의 낮은 우울감이 대인관계능력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때, 거부민감성이 조절역할을 하여 대인관계능력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거부민감성의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거부를 경험한 자녀는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이후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두려워하게 된다[17]. 또한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자신과 분리하고 자율성을 인정해주기보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자녀를 과잉 통제하는 경우,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37].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미 성장하였으므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낮추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부민감성은 거부에 대한 개인의 지각오류이므로 인지적 정서조절 훈련을 통해서 반사적인 정서적 반응과 적대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줄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22]. 또 지지적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전략도 거부민감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9]. 이런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우울과 거부민감성을 고려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편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직면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과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우울,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거부민감성이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과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우울과 거부민감성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개별화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우울과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S. Sullivan.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Company.
- [2] E. H. Erikson.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3] M. J. Park & N. Yang. (2017).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1), 103-127.
DOI : 10.23844/kjcp.2017.02.29.1.103
- [4] S. H. Park & H. K. Yu. (2018). The development of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2), 195-209.
DOI : 10.15703/kjc.19.2.201804.195
- [5] M. J. Park & N. Yang. (2017).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1), 103-127.
DOI : 10.23844/kjcp.2017.02.29.1.103
- [6] H. W. Lee, D. M. Yeum, & M. H. Lee. (2014). Impact of college students' mood aware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0(2), 415-433. UCI : G704-000501.2014.30.2.016
- [7] K. H. Kim & H. K. Lee. (2015). The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xploration of path model among experiential avoidance, self-compassion, and cognitive empath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6), 83-107.
DOI : 10.15703/kjc.16.6.201512.83
- [8] J. C. Coyne. (1976). Depression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2), 186.
- [9] Y. J. Kim, S. Ryu, & H. J. Cho.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focused attention and self oriented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7), 57-83.
DOI : 10.21509/KJYS.2019.07.26.7.57
- [10] H. S. Byun, K. H. Kim, & D. G. Lee. (2020). The relationships among anger 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4), 91-99.
DOI : 10.5762/KAIS.2020.21.4.91
- [11] G. F. Niu, X. H. Shi, L. S. Yao, W. C. Yang, S. Y. Jin, & L. Xu. (2022).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elf-efficacy. *Current Psychology*, 1-10.
DOI : 10.1007/s12144-022-03318-1
- [12] J. H. Jo & Y. R. Lee. (202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of covid blue, requirements for support at university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2), 317-340.
DOI : 10.21509/KJYS.2022.02.29.2.317
- [13] J. J. Chang, Y. Ji, Y. H. Li, H. F. Pan, & P. Y. Su. (2021). Prevalence of anxiety symptom and depressive symptom among college students during COVID-19 pandemic: A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2, 242-254.
DOI : /10.1016/j.jad.2021.05.109
- [14] A. I. Roche, P. J. Holdefer, & E. B. Thomas. (2022). College student mental health: understanding changes in psychological symptom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Psychology*, 1-10.
DOI : 10.1007/s12144-022-03193-w
- [15] M. McLafferty, N. Brown, R. McHugh, C. Ward, A. Stevenson, L. McBride, ... & E. K. Murray. (2021).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al behaviour among college students: comparisons pre-COVID-19 and during the pandemic. *Psychiatry research communications*, 1(2), 100012. DOI : 10.1016/j.psycom.2021.100012
-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2021 Korean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from <https://www.nypi.re.kr/atchfile/prevealAtchfile.do?vchkcode=QLnc0e1mU167>
- [17] S. Feldman & G. Downey.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DOI : 10.1017/S0954579400005976
- [18] S. R. Levy, O. Ayduk, & G. Downey.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terpersonal rejection, 10, 251-289.
- [19] R. Romero-Canyas, G. Downey, K. Berenson, O.

- Ayduk, & N. J. Kang.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DOI : 10.1111/j.1467-6494.2009.00611.x
- [20] K. B. Meehan, N. M. Cain, M. J. Roche, J. F. Clarkin, & C. De Panfilis. (2018).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daily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6, 109-115. DOI : 10.1016/j.paid.2018.01.029
- [21] S. H. Jeong & N. M. Ya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and emotional cla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5), 137-159. DOI : 10.22418/JSS.2021.12.60.3.321
- [22] H. R. Ryu & K. H. Park. (2014). The moderational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 203-218. DOI : 10.17315/kjhp.2014.19.1.011
- [23] L.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new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 : 10.1177/014662167700100306
- [24] K. K. Chon & M. K. Lee.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 (1), 65-76.
- [25] S. Schlein & B. Guerney. (1977). *The relationship change scal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6]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27] G. Y. Lee & H. Y. Hong,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the mediating effects of mattering and displace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9), 161-186. DOI: 10.21509/KJYS.2019.09.26.9.161
- [28] M. P. Mosteiro-Diaz, C. Baldonado-Mosteiro, P. Campos Pavan Baptista, A. Gamez-Fernandez, & S. Franco-Correia. (2023).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32, 5065-5075. DOI : 10.1111/jocn.16758
- [29] J. Lee, H. J. Jeong, & S. Kim. (2021).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novative higher education*, 46, 519-538. DOI : 10.1007/s10755-021-09552-y
- [30] D. Aschwanden, J. E. Strickhouser, A. A. Sesker, J. H. Lee, M. Luchetti, Y. Stephan, ... & A. Terracciano. (2021).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responses to coronavirus disease 2019: the role of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5(1), 51-66. DOI : 10.1002/per.2281
- [31] E. M. Szepietowska, E. Zawadzka, & S. Filipiak. (2022).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the sense of gains and los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intern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6), 3504. DOI : 10.3390/ijerph19063504
- [32] E. JO, H. S. Kim, & S. J. Hwang. (2020).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290-298. DOI : 10.5977/jkasne.2020.26.3.290
- [33] J. Kim & M. Jin.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by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4), 355-378. DOI : 10.21509/KJYS.2019.04.26.4.355
- [34] Y. H. Cho. (2023).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interpersonal relation, academic stress, ego identit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7(1), 225-233. DOI : 10.21184/jkeia.2023.1.17.1.225
- [35] A. J. Lee & S. M. Choi. (201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accepta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4), 209-224.

DOI : 10.15703/kjc.16.4.201508.209

- [36] M. J. Sun & S. G. Seo.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relationship addi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1), 1-20. DOI: 10.35151/kyci.2021.29.1.001
- [37] S. J. Goo & M. K. Song. (2018).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interperson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4(1), 1-21. DOI: 10.33770/JEBD.34.1.1.

권 명 진(Myoungjin Kwon)

[정회원]



- 2002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서, 노인, 정신질환, 만성성인질환
- E-Mail : mjkwon@dju.kr

최 현 숙(Hyunsuk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3년 3월~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기환자간호, 간호교육
- E-Mail : ilsu7729@gmail.com